

전 남

은빛 갈치  
황홀한 유혹  
목포는 불야성



최근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선상 갈치낚시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16년 전부터 시작된 은빛 갈치낚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이자 즐길 거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낚시꾼들은 가을 바다에서 반짝이는 은빛 갈치를 낚아 올리는 짜릿한 손맛과 막 잡은 갈치를 즉석에서 회로 먹는 재미에 빠져 매년 목포 앞바다를 찾아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23일 목포시와 낚시업계에 따르면 예년보다 한달 늦게 선상 갈치 낚시가 시작되면서 날이 저물어도 낚시어선 30여 척에서 매달아 놓은 수은 집어들로 평화광장 앞바다가 대낮처럼 환하다.

또 다른 갈치 포인트인 영암 현 대삼호공공어업과 해남 화원 별안리 앞바다에서도 50여 척이 광주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등지의 갈채공을 신고 밤샘 갈치낚시에 나서고 있다.

낚시 어선에 적당 10~20평의 낚시꾼이 자리 잡고 은빛 갈치 낚시를 하고 있다. 은빛 찬란한 갈치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와'하는 환호성이 터지는 등 축제 분위기가 대낮처럼 환하다.

낚시꾼들은 요즘 3~4시간에 60

예년보다 한달 늦은 선상 갈치낚시 손맛 짜릿  
내달 9~10일 '갈치축제' 낚시체험 등 행사 다채

cm 중간크기의 갈치 20~30마리를 잡아 올리는 등 짜릿한 손맛을 만끽하고 있다.

맨몸으로 와도 선상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다. 허룻밤 낚시대와 비롯한 미끼 등 모든 장비를 빌려 갈치 잡는 매력을 만끽하는 데 드는 비용은 4만 원이다.

목포 프로낚시 김명길 사장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온이 높아 갈치낚시가 한달 가량 늦어졌지만, 갈치가 갈수록 많이 잡혀 예년의 기록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달말

부터 갈치 씨알이 굵고 양도 많아져 선상 갈치낚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평화광장 일원에서 '2010 목포사랑 은빛 갈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00명이 참가하는 '은빛 갈치낚시대회'를 비롯해 해상스포츠 체험·갯바위 낚시체험·인공어초 낚시체험·갈치요리 시식 체험·목포미항 투어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장흥, 전통발효차 '청태전' 명품화 나서

세계녹차경연 최고상... 郡, 발효차산업 활성화 주력

장흥군이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靑苔錢)'의 복원과 발효차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떡차의 일종인 청태전은 동전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전차(錢茶)' 또는 '돈차'라고 불렸으며 발효과정에서 과산 이기가 긴 것처럼 변한다고 해서 불여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치면 보림사 일대는 예로부터 차나무가 자생해왔으며, '세종실록지리지'의 '차 전문 생산 단지인 다소(茶所) 19개 가운데 13곳이 장흥에 존재했다'는 기록과 '대동지지'의 '원래 차의 주산지는 전남이며 장흥 차의 품질이 으뜸'이라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장흥지역 차 역사는 깊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차 산업의 후발주자인 장흥군이 전통 발효차 청태전을 중국 보이차를 대체하는 발효차의 명품으로 만들어 산업화하기 위해 군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고부가가치 전통차인 청태전의 복원과 명품화를 위해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실시, 지난 2008년부터 청태전을 재현해 시제품을 생산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세계 녹차 경연대회에서 최고 금상을 수상, 청태전의 맛과 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군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청태전 거점 농가 3곳을 선정해 전통



차 제다시설 기반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고 전통차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매년 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차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청태전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항비만효과 등 기능성을 검증하는 등 품질을 높여 청태전의 상표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밤에만 운영

낮공연 시각적 효과 떨어져... 생동감위해 유람선 운영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낮 공연이 폐지되고 밤에만 운영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춤추는 바다 분수'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법 등을 개선, 보완했다.

특히 시각적 효과가 크게 떨어진 주간 공연을 취소하고 빛과 음악, 분

수의 조화로운 연출이 가능한 야간에만 운영할 방침이다.

광일은 저녁 8시·8시 40분·9시 20분 등 3회를, 주말에는 10시 공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분수에 근접해 생동감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시간에 맞춰 갯바위 유람선 주간 공연을 취소하고 빛과 음악, 분

목포시 관계자는 "음악분수 사진과 동영상 콘서트를 열어 바다분수를 전국에 홍보하고 국제 전문가와 예술·시민단체 등으로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바다 분수 조연을 받아 세계에서 하나뿐인 차별화된 바다분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하담 평화광장 앞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는 국비 68억원·시비 67억원 등 총 135억원이 투입된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분수로 수반 길이 150m·분수높이 30~70m 규모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해남군 내년 김 육상채묘 본격화

해남군이 기존 해상 채묘보다 안정적이고 체묘가 가능한 김 육상 채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일 화산면 송평 육상 채묘장에서 2011년산 김의 첫 채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올해 사용될 1만여척의 김 씨앗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 육상채묘는 육상에서 회전수차에 김방을 감아 채묘하는 방식으로 기존 해상 채묘에 비해 바다날씨의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채묘가 가능하고 패각 사상채 소요량이 적어 경제적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7680ha에 9만 9853척의 김양식장을 사설해 마른김 기준 1만 2169여만송(486억원)을 생산한 가운데 이 가운데 11%인 9893척을 육상채묘로 생산했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육상 채묘방식을 도입, 김 육상채묘 시설 3개소 및 냉동방 보관 기반시설을 구축

하는 등 국내 최대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친환경 고염처리 지원 ▲김 종묘 배양장설비 등 선진화된 김양식 기반시설 확보와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품질 향상에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어민들의 시간과 경비절약을 위해 육상 채묘를 적극 권장하고 올해 채묘비로 예산 2억2000여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재래방식인 해상 채묘에서 육상 채묘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육상 채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채묘율이 높으며 병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지속적인 김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의 해남김 생산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 신흥초 '과학탐구대회' 수상

전자과학부문, 대상 박도현·동상 박진오

목포 신흥초등학교(교장 조행욱) 박도현(5학년·오른쪽)과 박진오(5학년)군이 최근 전북 군산대와 새만금 산업전시관(물류지원센터)에서 열린 '제 28회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전자과학부문에서 대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교육과학기술부 협찬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교생 35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지난 2007년 전남도교육청의 과학과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흥초교는 그동안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한 후 자유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과학교육에 충실해 왔다.



지도교사 심재순 교감과 목안영 교사는 "두 학생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에 비해 창의성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목포교육지원청 윤주신 교육장은 "그동안 창의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과학교육을 실시한 결과"라며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들을 격려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화순 '자연속매마켓' 1호점  
광산 수원지구에 오픈 '인기'

화순군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직거래 마켓이 광주에 문을 열었다. 화순군과 (주)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7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원지구 주공휴먼시아 8단지 상가에 '자연속매마켓' 1호점을 개점했다.

'자연속매마켓' 1호점(대표 강인철)은 지난 17일 문을열어 19일까지 3일간 해방·기적떡·버섯 등 각종 농특산물을 하루 1000만원 이상 판매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김우식(주)화순농특 대표는 "앞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2·3호점이 속속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인터뷰

"조합원 권익보호·복지증진 최선"

최형식 목포수협조합장



"앞으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60.9%를 득표해 당선된 최형식(59) 목포수협 조합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조합의 주요 업무들이 침체돼 왔다"며 "앞으로 불신과 반목을 모두 떨쳐버리고 조합원의 명예와 조합의 공신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조합원이 목포수협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최 조합장은 ▲공정한 위관질서로 위관사업 활성화 ▲부당하게 제명된 조합원 구제 ▲영여자금 등 저리자금 지원확대 ▲북향 활동선어 위관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잔도 관내 출신인 최 조합장은 목포수협 이사와 근해안감방수협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Daedong, Gwangju, and Mokpo.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such as location, size,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